

경계 영역(境域)에서 읽을 수 있는 것

- 일본계 미국 이민의 일본어 문학 -

히비 요시타카*

I. 들어가며 - 일본어의 범위, <제국>의 판도

「일본어 문학」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라는 문제로부터 시작해보자. 내가 이해하기에 이 말은 「일본 문학」이라는 말과의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일본」과 「문학」 사이에 「어(語)」라는 하나의 말을 집어넣어 무자각적으로 국가와 문학이 일치하는 상태로부터 언어라는 또 하나의 요소를 가미하여 다시 문제를 구성하려는 논인 것이다. 언어를 고려에 넣음으로써 번역, 전용(轉用), 크레올, 혹은 모국어, 언어 내셔널리즘, 언어 교육, 언어 정책, 그 외의 여러 가지 개념이나 영역이 문학과 국가를 둘러싼 문제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가 걸어온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또 국경을 넘은 사람이나 정보의 흐름이 점점 빨라지는 현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아도, 「일본어 문학」이라는 발상으로부터 시작하는 연구에 대한 가능성은 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자신도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영역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영역과 마주할 때 여러 차례 머뭇거림과 어려움을 느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 나고야대학 문학연구과 교수.

포스트 콜로니얼한 연구는 조사와 분석 과정에서 콜로니얼한 상황을 발굴하여 재구성한다는 작업을 자주 수반한다. 물론 이 작업은 비판 혹은 재심(再審)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과정에 있어 식민지적 상황이 어떻게 구축되고, 운영되었는지를 재현해가게 되는 것이다. 일본어가 그리고 일본(어) 문학이 <제국>의 시대에 무엇을 행했는지를 생각하는 작업은 「제국」의 권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가 될 것이고, 그 힘이 미치는 판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 되기도 할 것이다. 예전에 이러한 잡지가 있었고 이러한 신문이 있었다, 이러한 문학이 있었다, 이러한 문학자들이 있었다라는 작업은 어느 부분에 있어 <제국>의 문학사를 재연해 가는 행위와 등가가 되어 버린다.

반복하면 물론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비판을 위해 행해진 작업이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비판을 위해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다면 그 연구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적인 사고가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역사에 대한 성찰이 있는 것일까? 이러한 종류의 다시 묻기는 신자유주의적인 역사수정주의와 근사(近似)한 표현이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내셔널리즘에 선동된 맹목적 역사 수정주의자와는 정반대의 입장에 위치할 것이다. 그러나 <제국>의 시대의 문화를 상세히 검토할 때, 그 중에서도 그것이 문학이나 언어, 교육 등과 같이 복잡한 요인과 과정이 뒤얽혀서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단선적으로 조응하지 않고, 또 거기서 생겨난 문화적 생산물 그 자체도 다의적이고 다면적인 해석이 가능한 영역에 있어 행해진 경우에는 출구가 정해져 있는 논의 따위는 판에 박힌 구호 이상의 의미는 갖지 못할 것이다.

일본어 문학의 연구는 그 전망의 광활함이 가진 광역적인 이미지와는 반대로 그 탐구에 발을 내디딘 탐구자가 길을 잃게 하는 애로(隘路)이기도 하다. 나는 한 사람의 일본인 연구자로서 어떠한 얼굴로 식민지기의 문학을 연구해야 좋을 것인가? 특히, 한국이나 타이완, 구 만주와 같은 장소에서 이전의 <제국>의 문화에 대해 조사하고 또 이야기할 때, 내가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연구가 실은 수치를 모르는 회고취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발을 멈추게 되는 순간이 나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간단하게 나오는 대답도 아니고 또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최근 내가 중요하다

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있다. 일본어 문학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본어의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라는 것이다. 일본어 문학은 다언어 상황일 때 비로소 태어나는 것이다. 국적, 민족, 언어, 거주지가 관계에 놓인 경역이라는 장 속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충돌하고 이해하고 오해하면서 언어를 엮어 갈 때, 그것이 생겨나는 것이다. 일본어 문학을 그 다언어 상황 속으로 돌려놓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것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연구자도 다언어 상황 속에 위치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것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이 참가하는 국제 심포지움이나 다국적·다언어 팀에 의한 공동 연구는 극히 중요하다.

여기서 내가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본계 미국 이민의 일본어 문학이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다언어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된 두 가지 화제에 대해 짧은 분석을 덧붙이고자 한다. 하나는 일본어 문학을 성립시킨 문화적 기반의 문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서점의 영업 양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또 하나는 <경역>에 있어 착종한 주체화의 문제. 이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계 사람들의 강제수용 캠프에 어서의 문학 활동을 통해 검토한다.

II. 일본계 미국 이민의 일본어 문학에 대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일본계 미국 이민도, 그들의 문학도 익숙하지 않는 영역일 것이다. 일본인이 미합중국에 이민을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이다. 처음에는 사비 유학생 등과 같이 일하면서 공부하는 고학생의 비율이 높았지만 그 후 곧 노동자들의 비율이 증가했다. 당시 일본과 미국의 경제 격차는 아주 컸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서라도 돈을 벌러 갈만한 충분한 매력이 있었다. 그들이 종사한 것은 농원의 허드렛일, 철도 깔기, 광산 노동, 임업, 어업 등이었다. 미국 국제 조사(U.S.Census)의 수치로는 일본계 미국인의 인구는 1900년에 85,437명, 1910년에 151,832명, 1920년에는 220,284명이 되었다,

이민 제1세대, 즉 1세대들은 당초 일시적인 돈벌이를 할 생각으로 머물렀다. 그 후 1910년 이후에는 고국으로부터 부인을 맞아들여 정주(定住)를 지향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된다. 남미나 만주 등, 후에 일본인 이민자들이 다수 건네 가게 된 지역과는 달리 미국 대학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등, 학문에 뜻을 두고 도향한 자가 많았다는 것도 북미 이민의 특징이다. 이 때문에 서생들의 문화가 이른 시기부터 개화했다. 미국에 사는 일본계 이민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배척 운동도 있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적국인」으로서 강제 수용을 당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의 일부는 지원병(志願兵)으로서 출정하여 격전지로 보내지는 등, 혹독한 체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가 될 지도 모르지만, 동 아시아 지역에 있어 일본어 문화과의 비교가 이후 문제가 될지도 모르니 이 문제에 대해 조금 언급해 두고자 한다. 해외로의 인구 이동에 관해서는 「이민」과 「식민」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다. 전자에는 경제적 이해 등으로 개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이주한다는 뉘앙스가 있고, 후자에는 국책적인 이유로 국가의 유도에 따라 지배국 사람들이 피지배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 용어법의 기본선에 따른다면 미국이라는, 당시 일본보다 국력이 강한 나라의 영토로 사람들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도향해서 정착한다는 것은 「식민」이 아니라 「이민」이라고 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예를 들어 구 만주국으로의 인구 이동은 국책에 의해 대규모로 사람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식민」이라는 말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메이저기의 미국 이민에 관한 논설을 따라가 보면 비록 기 인구 이동이 개인적인 돈벌이라는 동기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 해도 그것이 <제국> 일본의 해외 발전의 중요한 일보로서 평가되며-이는 자주 「평화적 확장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그 이민자들 중에도 자신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고 송금하고 미국 사회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것이 일본의 국력 증대로 연결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또 「이민」이라는 말이 주는 느낌만으로 그들이 금세 미국 사회에 동화되어 갔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이른 판단이다. 많은 갈등과 충돌을 거치면서 미국 사회에 동화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도미한 지 십 수 년 후인 2차 세계대전 때에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격리수용소 내에서 지낸 사람들도 있다.

미국으로의 일본인의 이동 문제는 동아시아 각 지역에 있어서의 그것과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를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그러면 일본계 미국 이민의 일본어 교육으로 돌아가자. 다무라 노리오(田村紀雄)(1991)가 강조했듯이 이민자들의 커뮤니티에는 그들의 모국어로 쓰여진 신문이 반드시 필요했다. 사회 관습, 언어, 출신지에 대한 관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고국의 문화를 이어받은 이민자들은 아이덴티티의 유지라는 적극적인 면, 또 언어적 부자유스러움이라는 소극적인 면이라는 쌍 방면에 있어 그들의 제1언어로 커뮤니티의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정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민지의 일본어 신문을 하나의 핵으로 하면서 일본계 미국 이민자들의 일본어 교육이 성장해간다.

그들의 문학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정된 지면 속에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1세 세대는 크게 고국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그들의 문학 또한 일본 문학의 강력한 영향 하에서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지향이 강했던 1세대가 정착함에 따라 「이민」으로서의 독자적인 표현을 모색해 간다. 이것이 기본적인 「알기 쉬운」 도식이다.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태를 너무나 단순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1세대」는 이민자, 즉 미국으로 옮겨간 미국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재미(在美) 일본인, 즉 미국에 있는 일본인인가? 두 가지 모두가 그들이 자칭해서 사용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나가이 가후(永井荷風)는 미국으로 가 5년간 체재하고(1903-07) 체재 중에 단편집 『미국 이야기』중의 많은 작품들을 썼는데, 그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가? 오키나 규인(翁久允)이라는 작가가 있다. 「식민지 문예」를 주창하고 1910년대에서 20년대의 일본계 미국 문학을 리드한 인물이며 일본계 미국 이민 문학자 중에서 가장 저명한 작가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이민지의 작가로 인식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도 1924년에는 13년간 생활한 미국을 뒤로 하고 귀국하여 1973년 일본에서 사망한다. 왜 나가이 가후는 일본의 작가이고 오키나 규인은 이민지의 작가인 것인가? 똑같이 일본에서 태어나 미국에 「일시 체재」하다가 일본에서 죽은 작가이다.

근대에 들어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사람, 물건, 정보가 격렬하게 오고 가기 시작했다. 그 활발한 움직임 속에서 생겨난 일본계 미국 이민의 문학은 그 움직임이 격렬했기 때문에 그 윤곽을 그리는 것이 지난하다. 그것은 국가, 인종, 말, 세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경계를 넘나드는 움직임 속에서 생겨난 문학이다. 경계를 넘고 경계를 뒤흔들고 경계라는 것의 존재를 다시 묻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복잡함 속어야말로 그들 문학의 재미가 있는 것이다.

Ⅲ. 서물(書物)의 유통

앞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오고 간 사람, 물건, 정보의 흐름을 말했다. 문학이 어떤 사회 속에서 생겨나 받아들여지고 계승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문학을 성립하게 하는 문화적 기반(infrastructure)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게재할 매체(신문, 잡지, 서적), 그것을 제작하는 집단(신문사, 잡지사, 출판사), 창작자나 독자들의 지적인 욕구에 호응하기 위한 정보 저장고(서점, 도서관)가 필요하다. 미국에 일본계 이민자들의 문학이 생겨났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래의 연구는 이 점에서의 간과하고 작품이 마치 작가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인 양 그것만을 독립적으로 논해 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들의 문학의 재미를 어느 한 면 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제국>의 시대에 있어서 문화의 동태의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게 된다.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서점 오차당(五車堂)의 활동을 기초로 이를 확인해보자. 자료1은 오차당이 취급하는 잡지의 목록이다. 발행은 1912년. 이 목록대로 잡지를 손에 놓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도쿄에서 간행되던 대부분의 주요 잡지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구독할 수 있었다는 것이 된다.

잡지뿐만이 아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베이스로 간행되던 일본어 잡지 『일미(日米)』의 1913년에는 오차당의 광고가 실려 있고(자료2), 이것은 오차당이 중계 판매할 수 있다는 일본 각지의 지방 신문의 리스트이다. 일본 각지의 여러

대소(大小) 신문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가운데 「조선」 「만주」 「타이완」 지역의 신문들도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유통량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오차당은 이 시점에서 적어도 태평양에 걸쳐 <외지>의 일본어 신문을 중계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서적도 구입할 수 있었다. 자료 1이 게재된 것은 『오차당 상보(商報)』라는 통신 판매용 도서목록이었다. 일본어 신문 『신세계』 1912년 12월 10일자의 부록으로 간행되었다. 총 8페이지의 이 소책자에는 신간 일본어 서적이 분야별로 죽 적혀있다. 일본계 미국 이민자들은 도시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농촌이나 어촌 등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차당 이외의 서점도 이러한 목록 같은 것을 간행하고 있었던 듯하다. 물론 이러한 서점은 가게도 운영하고 있어, 규모가 큰 가게는 넓은 가게 안에 천장까지 책을 쌓아놓고 있었다.(자료3) 시애틀에 있었던 대정당(大正堂) 서점의 전쟁 전의 재고는 10만권 이었다는 회상도 존재한다.(이토 가즈오(伊藤一男)1972년, p.375)

이러한 크고 작은 서점이 모두 합치면, 예를 들어 1908년 샌프란시스코에는 8개 존재했다. 이민지라고 하면 고국으로부터 거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단절된 공간을 상상하기 쉽지만 20세기 미국의 일본인촌의 실태는 그렇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 일본계 이민자 커뮤니티의 핵이 되는 서해안 도시에 있어 일본어 서적의 환경은 고국 일본의 지방 소도시를 살짝 상회하는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왜 이렇게까지 서점이 융성했던 것일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영어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다는 환경이다. 자신들의 모국어가 아닌,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해서 일하고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답답함, 이언어(異言語)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국의 언어에 대한 향수가 쌓이게 되고 이것이 이민자들을 일본어 서적으로 향하게 한 것이다.

IV. 강제수용하의 문학

1941년 12월 7일(일본 시간으로는 8일),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여 미일 전쟁이 시작된다. 미국에 사는 일본계 이민자들은 「적국인(敵國人)」이 되었다. 개전 직후부터 일본계의 리더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1942년 2월에는 육군 장관에게 군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모든 사람을 배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 명령이 발효된다. 이것이 일본계 이민자들에게만 적용되어 약 11만 명의 일본계 이민자들이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떠나기를 종용당한다.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된 것들은 극히 적었고, 사람들은 모아놓은 재산을 극도로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고 떠나게 되었다. 일단 근교의 「임시 수용소」에 집합한 후 그들은 더 내륙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에 급조된 「전주소(轉住所)」(「강제수용소」라고도 불린다)로 옮겨진다.

일본계 이민자의 강제수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세대도, 성장 환경도, 사상도, 사용 언어도, 그리고 국적마저 각각이었다. 일본에서 이주한 첫 세대, 즉 1세대는 당시 미국 국적을 획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인이었고 일본어로 말하고 대부분이 일본 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미국에서 낳은 아들 딸, 즉 2세대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혈통을 16분의 1이상 가지고 있는 자는 수용한다는 결정에 따라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2세대도 크게 2종류가 있다. 쪽 미국에서 자란 「순2세대」. 그들은 미국의 공교육을 받고 일본어는 이해는 하지만 영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고 미국인으로서의 가치관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한편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교육은 일본에서 받고 그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귀미(歸米)」들이 있었다. 귀미 2세대의 부모는 아이들에게 일본식 교육을 시키기를 위해 일본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아이들을 보냈던 것이다. 당연히 귀미들은 일본의 문화를 몸에 익히고 일본어로 생각하고 이야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으로 보내진 귀미들 중에는 국수주의적, 군국주의적 교육을 받은 세대의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원래도 다양화되어 있던 일본계 이민자들의 커뮤니티를 더욱 결정적

으로 분단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1943년,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일본계 사람들에게 대해 「출소 허가 신청서」라는 조사가 행해졌다. 이것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충성도를 여러 각도에서 묻는 33항목의 질문집이었다. 문제가 된 것은 27번과 28번 질문-미국에 지원하겠는가? 미국에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의 천황에 대한 충성을 부정하는가?-라는 것이었다. 커뮤니티는 이 질문에 대해 Yes, Yes라고 대답한 그룹과 No, No라고 대답한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가 Yes 그룹과 No 그룹으로 나뉘는 일도 있었다. 이 조사(「충성 등록」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를 거쳐 일본계 이민자들의 일부는 또 다시 이동을 하게 되어 어떤 이는 전쟁터로, 어떤 이는 불충성 그룹이 모인 「격리 수용소」로, 어떤 이는 수용소를 나와 미국 동부로 흩어졌다. 이 균열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미국의 일본계 이민자 사회 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문학에 관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여러 수용소 중에는 수용자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 레크리에이션을 장려하기도 했는데, 잡지가 왕성하게 간행되었다. 그 중 주요한 것은 지금 후지(不二) 출판(도쿄)에서 『일본계 미국문학잡지 집성』으로 복각되었다. 그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는 것은 이번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물의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계 미국인의 문학을 복수 언어 상황 속에서, 복수의 아이덴티티의 갈등을 묘사해 내는 것으로 읽어 보고자 한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토 다다시(伊藤正)라는 작가이다. 그가 남긴 작품으로 추정하건대 그는 하와이에서 태어난 귀미 2세대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한 시대에 이미 30대 전반으로 2세대치고는 나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수용소에서 간행된 『청년(若人)』 『노도(怒濤)』 『철책(鐵柵)』 등과 같은 잡지에 몇몇 창작과 수상(隨想)을 실었는데 모든 텍스트는 서로 다른 세대와 입장의 일본계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각각의 사상이나 대립상을 파헤쳐 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검토할 것은 그 중에서도 미국인 친구가 등장하는 것이 특이한 「애증록(愛憎錄)」(『철책』1945년 1월)이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수상으로 쓰여진 것 같은데, 다음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소설의 대화 장면 같은 스타일을 채택하고 있고, 아마도 일정한 허구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이토가 이러한 문체로 추구하고자한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전쟁이 개시되어 떠나려던 아침, 미국인 친구가 차가를 데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다. 「나」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2세대이고 더구나 미국의 병역을 마치고 얼마 전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친구는 그 사실도 알고 있으며, ‘왜 시민인 자네가...’라며 동정을 표한다. 일본계 사람들의 퇴거가 군사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미국인 사이에 퍼져나가는 일본인에 대한 증오의 감정과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마저 완곡하게 말하는 친구의 솔직함에 「나」는 감명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토로한다. 그것은 모순으로 균열이 나 있는 젊은 번민이다. 「나」는 전시하의 많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인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격렬한 분노를 느끼고 「어떤 미국인으로 부터도 동정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한 편 눈앞의 좋은 이웃인 친구의 진심에는 감사와 감격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퇴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편 미국 시민인 2세대인 자신이 「일본인」으로 취급당하는 것이 기쁘다고 한다. 「나」는 스스로가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물론 자신이 「이 나라 [미국]의 헌법에 정해진 훌륭한 시민(citizen)」이라는 사실도 자각하고 있다. 「나」는 말한다. 「나는 당당들이 행복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서는 미국인들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내가 일본의 승리를 바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미국인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은 서로 모순되는 것일까요?」

스스로도 알고 있듯이 「나」는 서로 충돌하는 다른 감정을 품고 있다. 이토는 다른 소설 작품인 「이 길을 걷다」(1944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와이 귀미 2세대가 미국군의 소집에 응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나는 확실히 미군 군인이다. 그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나는 일본인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번민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토가 그리는 2세대의 갈등을 일본계 미국인의 공통된 괴로움으로서 일반화할 수는 없다. 1세대도 2세대도 각각의 배경이나 신조가 다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토가 그리고 있는 인물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의 고뇌에 그치지 않는 파급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를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고뇌와 갈등을 집요하게 묘사하는 힘이 이토의 작품에는 존재한다.

작품 속의 2세대들은 군의 소집이나 시민들의 증오, Yes/No로 개인의 신조를 나누는 조사서, 수용소 캠프 헌병들의 호출과 같은 외적인 힘에 의해 농락당하고 그때마다 자신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한다. 외부로부터 사건이 도래하고 그에 대한 반응과 선택이 갈등 속에서 취해진다는 이토의 작품이 그리고 있는 프로세스는 그것이 어떠한 입장이건 미국 사회라는 이향의 땅에 있어서 이민자들이 계속 해온 주체화의 프로세스와 비슷하다. 이토의 텍스트와 마주함으로써 독자가 알게 되는 것은 「귀미 2세대」, 「일본인」, 「미국 시민」 등과 같은 것이 미리 확고한 카테고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래하는 상황 속에서 선택해가는 「이 길」의 축적 속에서 선택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라는 발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1세대」도 「2세대」도 「제국의 신민」도 「2세대 병사」도 각각의 선택이 축적되어 가는 앞길에 효과로서 나타나는 프로세스로서의 카테고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우리가 일본계 미국인의 일본어 문학을 새롭게 읽으려고 할 때, 그들의 체험의 고유성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경험과 유산으로부터 오늘의 과제를 이해하려는 것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토의 텍스트는 결국 「귀미」라면 「귀미」로서 카테고리화 되어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단순한 사고에 브레이크를 걸어준다. 작중 인물들은 하나의 선택의 과정에 존재하는 팽대(膨大)한 마음의 갈등을 대화나 독백이라는 형태로 전개해 보여준다. 그것은 결과 밖에 보지 않는, 걸모습밖에 보지 않는 발상으로는 누락되어 버리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고뇌이다.

그러나 이토의 텍스트만으로 이 문제를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토의 작품에는 「미국인 친구」나 입대해서 군에 있는 동료들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다. 예를 들어 여기서 검토한 「애증록」의 대화가 실은 영어로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면, 독자 앞에는 일본계 이민자들을 둘러싸고 있던 압도적 다수의 영어 화자들의 세계로의 통로가 겨우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영어 화자의 세계와 일본계 미국인의 일본어의 세계를 동시에 조망할 때 일본계 미국 이민자의 문학은 더욱 다른 면모를 드러낼 것이다.

물론 일본어 문학 연구는 일본어·일본 문학에 대한 지식 없이는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어·일본 문학에 대한 지식만으로 그것을 행하면 일본어 문학이라는, 경(계영)역에서 탄생하는 문학의 한 쪽 면밖에 보지 못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연구는 일본인 사회밖에 보지 않았던 전전(戰前) 식민자들의 협소한 시야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일본어 문학이라는 영역이야말로 다언어의, 다국적 팀에 의한 다각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 伊藤一男(1972) 『続北米百年桜』(北米百年桜実行委員会, シアトル) 1972年 4月.
 伊藤正(1944) 「この道を行く」 『怒涛』 1944年 7, 8月.
 伊藤正(1945) 「愛憎録」 『鉄柵』 1945年 1月.
 田村紀雄(1991) 『アメリカの日本語新聞』 新潮社, 1991年 10月.
 日比嘉高(2006) 「永井荷風 『アメリカ物語』 は日本文学か?」 『日本近代文学』 第74集, 2006年 5月.
 日比嘉高(2008a) 「移植樹のダンス-翁久允と「植民地文芸」論」 『テキストたちの旅程-移動と変容の中の文学-』 (筑波大学文化批評研究会編) 花書院, 2008年 2月.
 日比嘉高(2008b) 「北米日系移民と日本書店-サンフランシスコを中心に」 『立命館言語文化研究』 20卷 1号 2008年 9月.